

□ 아시아경제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일반에 서비스

산림청, 맞춤형조림지도 및 100대 명산 등산정보 등 종합산림정보 제공

기사입력 2009-03-02 11:25 작성상 wss4044@asiae.co.kr

추천

반대

1

0



“내 산엔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까?” “올 봄엔 어느 산을 등산해볼까?”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2일부터 일반에 서비스하는 ‘산림지리정보 포털 사이트’(<http://fgis.forest.go.kr>)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다.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는 맞춤형조림지도, 100대 명산 등산정보, 전국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정보 등 각종 유용한 산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무료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산림에 대해 지금의 수종분포와 수령정보(임상도), 지역별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조림권장 수종정보(맞춤형조림지도), 산의 높이, 경사도, 방향, 토양정보(산림입지도) 등 세부 산림지리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요즘같이 나무심기에 적합한 계절을 맞아 본인소유 산지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에 접속,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일반에 공개된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본인 소유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분포와 더불어 산지의 토양, 기후, 경사도 등 35개의 입지 환경 및 토양조건을 고려해 성장에 알맞은 조림권장 수종정보를 제공한다.

이같은 정보는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니더라도 지번이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전국 어느 산림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산림청이 정한 전국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정보와 가까운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보 등 각종 산림이용정보들도 제공해 준다.

사이트상에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고르면 구역안에 있는 100대 명산이 나타나고 등산하고 싶은 산을 클릭하면 해당 산의 기본소개와 추천등산코스, 산행 포인트, 인근의 볼거리, 먹을거리, 문화행사정보를 알려준다.

아울러 해당 산에서 가까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숙박 및 수목원관람과 연계해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개인GPS를 휴대한 등산객들이 많은 점을 감안, 등산 뒤 개인GPS정보를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자신이 올라갔던 등산코스를 지도상에 나타내 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만의 등산지도도 만들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과 같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의 위치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 1995년부터 전국 산림에 대한 항공사진촬영과 분석, 산림현장조사를 거친 뒤 인공위성 등 최첨단 지리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접목시켰다.

산림청은 '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서비스를 통해 50여년 종이도면으로 관리해오던 산지관리를 디지털화해 본격 산림과학경영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국민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예산절감,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상길 산림청 차장은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해 산림지도도 정밀화(1대 5000)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고품질의 산림공간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등 21세기 디지털산림관리를 위해 꾸준히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성삼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